

역내의 밸류체인과 부가가치 교역구조 분석을 통한 Asia Decoupling 가설 검증

오혁중* · 곽노성**

A Study on Asia Decoupling through the Analysis of Global Value Chain and Trade in Value Added

Hyeok-Jong Oh* · Ro-Sung Kwak**

요약 :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외부 선진 경제권과의 디커플링 가설을 최신 부가가치 교역통계를 활용하여 지역과 국가간 교역패턴 변화를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부품이나 중간재 교역비중 등을 통한 간접 측정방법이 아닌 실제 부가가치의 역내의 배분 정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능력 지표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첫째, 2000년대 중반까지 동아시아 성장엔진으로 작용했던 최종수요와 수출의 역내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국제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둘째, 지역내 국가간 부가가치 배분 패턴의 변화에서 GVC 발전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배양을 기대할 수 있는 후발 개도국의 기부능력이나 수혜능력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중심국으로 기능하고 있는 중국의 역내 부가가치 기부능력이 2000년대 중반 이후 현저히 감소한 반면 수혜능력은 크게 늘어나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역내 선진 경제국의 부가가치 수혜능력 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등 중국의 역내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제한적임을 발견하였다.

주요어 : 디커플링, 글로벌 밸류체인, 부가가치 교역, 부가가치 창출능력, 국제투입산출표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the 'Asia Decoupling' hypothesis, focusing on changes in trade patterns between regions and countries, based on the latest value added trade statistics. As an analytical tool, indicators that can directly measure the degree of distribution of actual value added were used. Main findings are: Firstly, creating potential at regional level which used to be the growth engine of East Asia until the mid-2000s declined sharply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econdly, in the development pattern of the value added distribution network, no positive change has been detected in the give-out or gain capacity of emerging countries that can generate future growth in East Asia through GVC development. Lastly, China's value added contributing capacity, as different from the hub countries in other regions such as US and Germany, has declined significantly since the mid 2000s, while its capability to benefit greatly

* 주저자: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사회과학대학 국제통상학과 박사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Ph. D. Candidat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s and Business, Dongguk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yeokohch@gmail.com)

**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사회과학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s and Business, Dongguk University-Seoul Campus, rskwak@dongguk.edu)

increased, and the gain potential of advanced group countries in competition with China is decreasing. We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intra-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mechanism including all countries in East Asia for expanding the value creating capacity in the region.

Key Words : Decoupling, Global Value Chain, Trade in Value Added, Value Creation Potential, World Input-Output Table.

1. 서론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이 역내 생산네트워크 발전과 교역협력을 통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세계 경제와 교역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커지자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아시아 디커플링(Asia Decoupling)’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디커플링’은 글로벌 수요변동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독립되고 독자적 내부 수요에 의해 주도되는 비즈니스 사이클의 등장으로 정의된다(ADB, 2007). 디커플링 가설에 대한 지지는 아시아가 급속한 내수 성장과 역내 경제통합에 힘입어 과거와는 달리 외부 선진경제의 경기 둔화를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자체 성장동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미국 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접어들면서 쇼크 진원지인 선진국은 물론 중국과 아시아 등 신흥 개도국 전반의 교역 성장세가 정체되고, 이후 점진적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교역의 소득 탄력성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게 지속되는 ‘뉴노멀(New Normal)’ 현상이 나타나자 아시아 디커플링 가설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많은 실증적 분석이 뒤따랐다. 그간 아시아가 EU, NAFTA와 같은 공식 경제통합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 주도, 2000년 이후 중국 중심의 투자와 교역 협력을 통해 역내는 물론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GVC)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감안하면, ‘뉴노멀’과 ‘아시아 디커플링’가설에 대한 평가는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디커플링에 관한 재연구의 흐름은 크게 나누어 ① 동아시아 거시경제의 외부 선진경제와의 동조화 여부와 정도에 관한 회귀분석과 ② 부품이나 부분품 등 중간재를 매개로 한 동아시아 생산과 교역의 패턴 변화에 관한 분석으로 대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GVC상의 생산 협력에 따른 교역 부가가치의 원천과 도차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총량 교역데이터를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연구에서 활용한 부가가치 교역데이터 자체도 가용 국가와 시의성에 큰 제약이 있어 부가가치 교역의 최근 패턴변화를 정확히 포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다행히 2010년대 초반부터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의 노력으로 주요국가의 투입산출표와 교역흐름을 연계한 세계투입산출표(WIOT) 구축과 확대에 발전이 있었고,¹⁾ 이를 활용한 부가가치 교역 분해와 GVC 분석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크게 진전되었다.²⁾ 특히 2018년 12월에는 WTO와 OECD가 공동으로 발전시킨 ‘TiVA 2018’이 발표되어 세계 부가가치 교역패턴에 관한 비교적 최근 흐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지게 되었다.³⁾ 또한,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공격적 해외직접투자(FDI)를 발판으로 지역 밸류체인에서 중심국(hub) 역할을 했던 일본의 선도적 위상이 이미 크게 축소되었고,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경제개방 정책과 2000년 WTO 가입

이후 급속히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를 기반으로 역내 신흥 hub로 등장한 중국마저 국제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내수 위주의 질적 성장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아시아 성장동력 엔진으로서의 역할이 의문시되는 시점에서, 아시아 디커플링 가설을 다시 한 번 검증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 OECD, WTO와 UNCTAD 등 국제기구의 최신 부가가치 교역 통계와 GVC 관련 주요 지표를 활용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과 교역 협력의 동태적 패턴과 부가가치 역내 의존도의 변화를 살피는데 중점을 둔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아시아 디커플링에 관한 선행 연구에 비추어 본 연구의 연구과제,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최근 부가가치 교역의 패턴과 글로벌 흐름에 대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새로운 측정 지표를 활용한 동아시아 교역 부가가치 국경간 창출 능력에 대해 분석하고, 5장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본 연구의 중점 및 분석방법

1) 선행연구

아시아 디커플링 가설은 동아시아 지역이 전통적 선진시장 경제의 경기변동에 영향 받지 않고 독자적 성장동력을 지속할 잠재력을 가진 자족 경제주체가 되었다는 시각(notion)으로서,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금융위기 전까지 아시아 정책 서클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Athukorala *et al.*, 2009). 이러한 희망적 견해는 역내 투자와 교역협력을 통한 경제통합 가속화와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수직적 분업을 통한 역내교역 비중의 급격한 증가에 기반을 두었다. 그러

나 2008-2009 국제금융위기 이후 선진 주요경제권의 경기 침체와 이로 인한 급격한 수요 감소에 동반하여 아시아의 수출과 총생산도 급격한 하락을 면치 못하면서 아시아 디커플링 가설은 큰 도전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한 활발한 논쟁이 벌어졌다.

아시아 디커플링에 관한 연구는 주로 동아시아⁴⁾와 외부 선진경제간 GDP와 교역 등 주요 변량에 대해 중력이론을 기초로 회귀분석을 시행하거나 충격 반응모델이나 동적요인모형 등 시계열분석 방법을 통해 경기변동의 전과 채널과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최근 들어 GVC 발전 추세에 맞추어 이의 근원이자 결과로 나타나는 중간재 교역과 최종 수요 의존도 등의 변화 패턴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경제통합의 경기동조화 영향에 관한 경제이론은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따라서 실증적 문제로 귀착되는데(Duval *et al.*, 2017), 아시아 교역패턴과 경기동조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결과 또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Lall and Albaladejo (2004), Rodrik(2006) 등 주로 국제금융위기 이전 연구들은 중국의 성장동력이 이끄는 아시아의 독자성장 잠재력과 경기변동의 외부 절연 가능성을 주장한 반면, Park and Shin(2011), Kwak(2012), Ravenhill(2014) 등 국제금융위기 이후 연구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최종 조립재의 수출 목적지는 여전히 역외시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들어 디커플링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최근 교역 패턴을 분석한 주요 연구로서 Athukorala(2016)는 총교역 기준(gross) 데이터를 사용하여 중국의 수출입품을 부품과 부분품, 조립 최종재, 네트워크 교역으로 구분하여 중국 제조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역내의 네트워크 교역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세 시기로 나누어(1997-8, 2005-6, 2013-4) 분석하였다. 그 결과 ①최근 들어 중국의 부품과 부분품의 타 동아시아 국가 수입 의존도가 현저히 감소하

고 있는 반면, 글로벌 생산체인에서 부품과 부분품의 중요한 공급자로서 부상하고 있고 ②조립 최종재 수출에 있어 개도국 시장 비율이 증가하는 등 수출선 다변화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서구시장이 큰 흡수(absorption)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③중국의 최종재 내수 증가도 수입유발도가 낮은 상품구조 위주임을 발견하였다.

Wang, Wei and Zhu(2017)는 자체 개발한 수출입데이터 분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생산활동의 국경간 이동을 GVC 교역과 non-GVC 교역(리카도 타입 최종재) 활동으로 구분하고, GVC도 '단순 GVC'(국경간 이동 1회)와 '복합 GVC'(국경간 이동 2회 이상)로 구분하여 산출된 인덱스에 기초하여 전후방 GVC 참여도를 재 정의하였다. 그는 WIOD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02-2014 기간 중 세계 GVC 참여도를 측정된 결과, GVC의 발전이 지난 15년간 글로벌 GDP 증가의 주요 동력이며 경기동조화의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동시에 최근 2012-2015년 사이 복합 GVC 관련 국경간 생산분할과 공유활동이 감소 추세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역통합도와 경기동조화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Duval *et al*(2014)이 교역통합도(trade integration) 측정 지표로 교역집중도(trade intensity)에 추가하여 수직적 통합도(vertical integration), 수평적 통합도(intra-industry trade), 교역상품 유사도(bilateral correlation of specialization) 등 4대 지표를 구성하여 패널 회귀분석 시행했다. 그 결과 권역간 교역집중도 증가가 평상시 경기동조화(BCS) 강화에 중대한 역할을 하며 경제위기시 이를 더욱 증폭시키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하나, 수직적 통합도나 수평적통합도 등은 경기동조화에 대한 영향이 미미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계 최종수요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중국의 성장쇼크가 서구보다 동아시아에 큰 동조화를 유발하는데, 중국의 GDP 1% 성장이 1년 뒤에 아시아국 평균 GDP를 0.3% 상승시킴을 발견하였다.

Park(2017)은 VAR 모델을 활용, 미국의 GDP와 세계교역량, 금융취약도와 중국의 생산 충격이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동 연구에서, 아시아 역내 교역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최종생산품의 시장이 역외로 향하는 생산체인의 수직적 통합을 통해 산업 내에서의 조립가공으로부터 주도되는 만큼, 아시아의 수출은 선진국의 쇼크에 민감도가 크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Wang, Wei and Zhu(2013) 분해 방식에 의한 ADB의 국제투입산출표 분석결과, 아시아 경제와 교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긴 했으나 미국 경제는 여전히 아시아 지역경제의 외부 충격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아시아 수출에서 차지하는 미국과 EU, 일본 등 G3 비중은 낮아졌지만 변동 상관관계는 더욱 커졌음을 발견하였다.

동아시아 교역패턴과 경기동조화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2) 본 연구 중점 및 분석방법

국제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디커플링 가설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아시아가 미국이나 선진 경제권의 경기침체로부터 견딜 수 있는냐의 문제를 떠났으며(Kim *et al.*, 2009), 좁게는 동아시아가 주요 선진경제권의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고도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가와, 넓은 의미에서는 글로벌 경제에서 아시아 지역의 경제역량과 영향력 강화를 전제로 아시아 개도국과 전통 선진경제권간 거시경제 상호 의존도의 진화에 관한 이슈(Park, 2017)라는 점에서, 최근 동아시아의 GVC 발전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교역의 패턴 분석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의 특징은 EU나 NAFTA와는 달리 공식 통합기구가 없고, 독일이나 미국 등 중심국가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채 일본, 중국, 한국 등 다극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발전 격차가 큰 선진 개도국과 후발 개도국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

표 1. 아시아 디커플링에 관한 최근 연구

	분석 방법	발표 년도	저자	제목	데이터	분석지표	분석 기간	분석결과	특기사항
1	GDP 해외 수요 의존도	'14	W Pascha, <i>et al</i>	Decoupling and Sources of Transformation of East Asian Economies	AIO (JETRO)	GDP, 수출, 해외수요	'90-'06	.동아시아 수출의 G3와 ROW 의존도 증가	아시아 디커플링에 관한 어떤 신호도 찾을 수 없음
2	교역패턴	'16	P. Athukorala, <i>et al.</i>	China's Evolving Role in GPN: The Decoupling Revisited	총교역통계	부품, 부품품 수출비중	'92-'14	.중국 주도 동아시아 성장동력 보유, 그러나 최종재 수요시장 여전히 서구 의존	아시아 디커플링 반박
3	패널회귀분석	'14	R. Duval, <i>et al.</i>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A Reappraisal with Focus on Asia	부가가치 교역 통계 (OECD)	교역집중도 수직통합도 수평통합도 교역상품 유사도	'95-'12	.교역은 경제위기 전과의 중요 한 채널. 교역집중도 뿐만 아니라 교역형태가 경기동조화 요인 .부가가치 기준 중국 수요 의존도 증가가 중국 성장쇼크의 국제 적 전파와 중국 동조화 증폭	아시아 국가의 중국과 경기 동조화 강화
4	상관 분석, 교역패턴 분석, VAR	'17	CY Park	Decoupling Asia Revisited	부가가치 교역 통계(ADB)	Instant Quasi-Correlations, Import Share, Impulse Response	'95-'15	.동아시아 역내 생산과 교역네 트워크에서 중국의 중심적 역할 강화, VAR 모델 적용, 미국의 총생산과 세계 교역, 금융취약성 등 여전히 아시아 지역경제 외부 충격요소로 작용	중국 영향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여전히 외부 충격요소로 작용
5	패널회귀분석	'17	JK Jeon	Trade Intensity and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부가가치교역 통계(WIOD)	교역집중도 산업내교역 집중도	'95-'11	.유럽국에서 교역과 경기 동조화 정의 상관관계, 산업내교역 역할유의성, 동아시아 상관관계 불분명	아시아 역내 상관관계 불분명
6	패널회귀분석, GVC 분석	'17	WWZ	GVC and Recent Global Business Cycle	부가가치교역 통계(WIOD)	GVC 참여도 (단순, 복합 GVC)	'00-'14	.복합 GVC 참여도가 경기동조화의 주요 요소 확인	GVC와 경기동조화 상관관계, 2012-2015 기간 중 복합 GVC 참여도 하락 확인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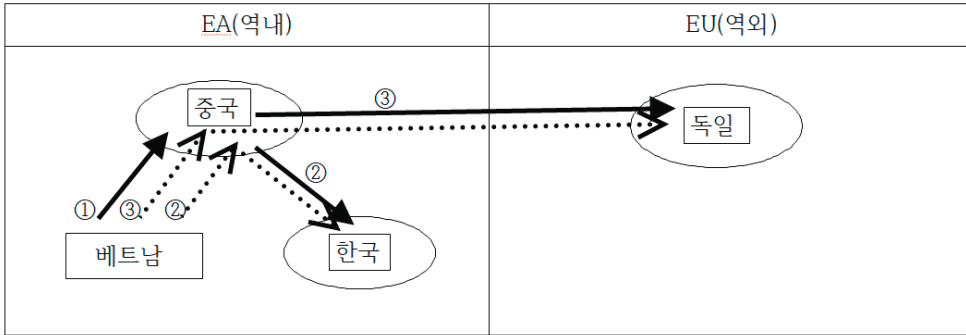


그림 1. 중국 최종수요와 수출을 통한 역내 타국 부가가치 창출 흐름
 주: 점선 화살표는 중간재 교역, 실선은 최종재 교역을 표시한다.

른 권역과는 GVC 협력 형태가 다르며 보다 동태적 변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아시아 디커플링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과제를 중점 살핀다. ① 동아시아가 역내 밸류체인 협력과 발전을 통해 최종수요와 수출이 창출하는 역내 부가가치 창출이 어느 정도 역의 독립적인가? ② 중심국(hub)과 주변국(spoke)간 부가가치 상호 공여를 통해 자체 성장동력의 기반을 갖춰가고 있는가? 이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최종수요가 역내 타국 부가가치를 어느 정도 직간접으로 창출해 내고 있는지, 그리고 자국 수출을 통해 역내 타국의 부가가치를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유발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는 Haltmaier *et al.*(2007)이 제시한 성장동력(growth engine)으로서 역할과 부가가치 전도자(conduit)로서 역할에 해당된다. 나아가 이러한 부가가치 창출의 역내외 배분 패턴과 시계열적 진화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그림 1과 같이 중국의 역할 측면에서 예를 들어 보면, 화살표 ①은 중국에서 소비되는 베트남의 최종재 또는 중간재 수출로 중국의 최종수요가 베트남에 직접 유발 하는 부가가치이며(중국의 성장동력으로서 역할), 화살표 ②는 중국의 한국 수출에 투입된 베트남 중간재로서 중국의 역내 수출

이 베트남에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부가가치, 화살표 ③은 중국의 독일 수출에 투입된 베트남 중간재로서 중국의 역외 수출이 베트남에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부가가치를 표시한다(이상 중국의 부가가치 전도자로서 역할).

분석대상국과 데이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동아시아(12)와 EU(18), 미국 등 총 31개 국가⁵⁾를 대상으로 하며, ② 총교역량 대신 최근 OECD에서 공표한 국제투입산출표(ICIO)와 부가가치 통계(TiVA), UNCTAD의 GVC 분석 자료 등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고, ③ 생산 및 교역 통합 측정 지표로서 GVC 참여도, 해외수요 의존도 등 지표를 사용하며, 각국 최종수요와 수출이 유발하는 역내 부가가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Inomata *et al.*(2015)가 제시한 부가가치 기부능력(give-out potential)과 수혜능력(gain potential) 지표를 발전시켜 사용한다.

3. 최근 GVC 와 부가가치 교역 패턴 변화

2000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와 교역 성장률은 크게 위축되는 가운데, 2012년 교역이 성장을 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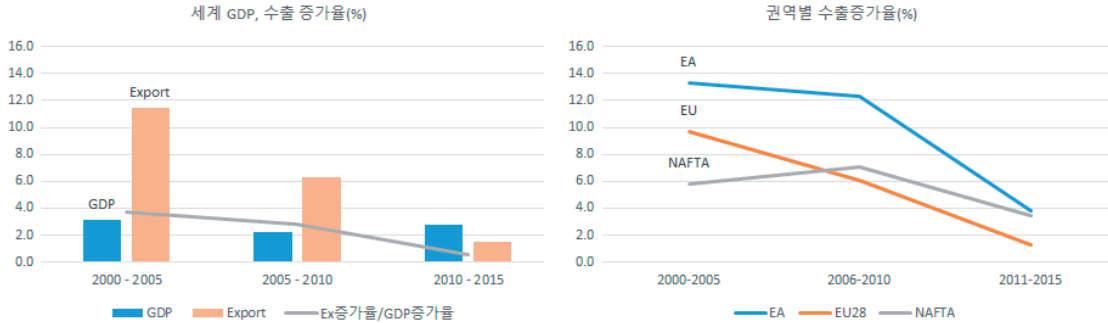


그림 2. 세계 GDP, 수출증가율

추고 2015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교역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소위 ‘New Normal’ 현상이 발생하였다. 같은 기간 동아시아(이하 EA로 표기한다)의 경제 성장률은 EU, NAFTA 등 주요 선진 경제권과 세계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였으나, 수출 성장률은 타 권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며 글로벌 교역 침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그림 2).

1) 권역별 및 국가별 GVC 참여도

각국은 국제 생산과 교역 협력 과정에서 중간재의 수출과 수입을 통해 GVC에 참여하게 되는데, 참여형태는 각각 전방참여(foward participation)와 후방참여(backward participation)로 구분되며, GVC 참여도(GVC participation rate)는 양 방

향 참여도를 합한 개념이다⁶⁾. UNCTAD가 제공하는 GVC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세계 GVC 참여도를 산출해 본 결과(그림 3), 권역별 GVC 참여도 크기는 EU, EA, NAFTA 순으로 나타났는데, 각 권역 모두 1990년대부터 2008년 금융위기까지 지속 증가했으나 이후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GVC가 위축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010-2015 기간 중 특히 EA의 GVC 참여도가 가장 크게 낮아졌다.⁷⁾

무엇보다도 관심을 끄는 것은 중국의 변화이다. EA 역내 밸류체인 심화와 확대를 주도해 온 중국의 GVC 후방참여도는 2004년 이미 정점(0.18)에 달한 뒤 정체되다가 2012년부터 타 권역 hub에 비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중국의 GVC 후방참여도는 20년 전인 1996년 수준(0.128)으로 회귀하였다. 반면 GVC 전방 참여도는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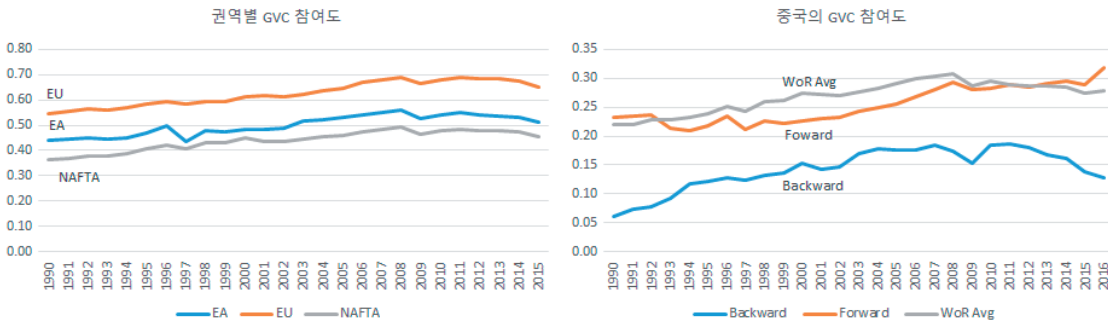


그림 3. GVC 참여도(권역별, 중국)

년(0.24)부터 2008년(0.32)까지 금융위기를 제외 하곤 지속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이와 같은 GVC 후방참여도의 현저한 감소와 전방참여도의 지속 적 증가는 중국이 더 이상 조립가공지인 ‘Factory Economy’ 만이 아닌 중간재 공급자인 ‘Head Quater Economy’⁸⁾로서의 성격도 띠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A 차원에서 보면 역내 부가가치 창출(engine)과 전도자(conduit)로서 중국의 역할 이 감소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부가가치 전도 자(conduit)는 Haltmaier *et al*(2007)이 제시한 개념으로서, 제3국으로의 최종재 수출에 필요한 중간 재 수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역 상대국의 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2) 국내 부가가치 해외수요 의존도

일국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는 국내와 해외 수요 로부터 유발되는데, 국내 총생산 부가가치의 해외 수요 의존도는 일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가운데 해외수요에서 충족되는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 을 말한다. 이는 일국 경제의 GVC 협력 수준을 말 해주는 동시에 해외 경기변동에 취약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지

표수준이 높다.

TiVA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권역별 국내 총 생산(GDP)의 해외수요 의존도는 2016년 기준 EU, EA, NAFTA 순이다(그림 4). 특기할만한 사항은, EU와 NAFTA는 2000년초 이후 해당 수치가 금융 위기 이후까지 완만하게 계속 증가하다가 2012년 부터 정체되고 있는 반면, EA는 2000~2007 기간 중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상승하고 금융위기 이후 다시 급속한 감소와 정체에 놓이며 그 수준이 EU에 비해 다시 낮아졌다(2007, 16.2%→2016, 12.2%). 이는 국제금융위기 전후로 중국을 비롯한 ASEAN 등 EA 국가 전반의 내수위주 성장정책으로의 전환 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⁹⁾

EA 부가가치 해외의존도를 수요 원천지별로 구 분해 보면(그림 5), 역내(EA) 수요 의존도는 2000년 초부터 2004년까지 증가하다가 이를 정점으로 금 융위기 직전까지 하락세에 접어들었으며, 금융위기 를 계기로 2011년까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으나 2012년부터 소폭 감소하고 있다. 한편, EA 부가가 치 미국 수요 의존도는 2000년대 초부터 금융위기 시를 거쳐 계속 크게 줄어들었으며, EU 수요 의존 도는 2000년대 초반 큰 변동이 없다가 금융위기 이 후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기타지역(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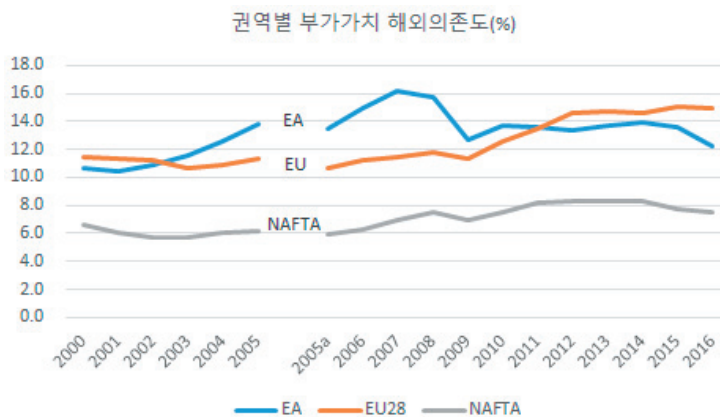


그림 4. 권역별 역내 부가가치 해외수요 의존도

주: 2000~2005 기간 데이터는 TiVA 2016 활용, 2005~2015 기간 데이터는 TiVA 2018 활용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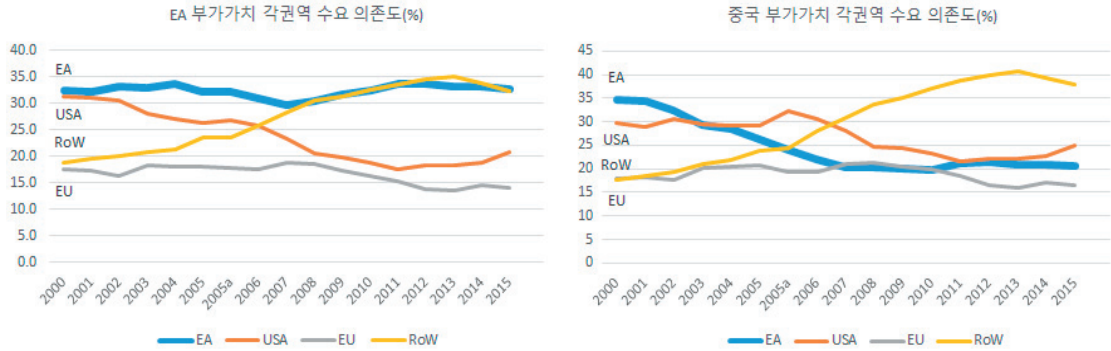


그림 5. EA와 중국 부가가치 각권역 수요의존도 변화

에 대한 수요 의존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 상승하여 2013년까지 크게 늘어났다.

EA 역내 부가가치의 50%를 차지하는 중국의 권역별 수요 의존도의 변화를 추가로 살펴보면, 역내 수요 의존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수요 의존도는 2000년대 중반부터 금융위기 시기까지 크게 감소한 반면 기타지역 수요 의존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EA와 중국 모두 2011년 이후 미국 수요 의존도가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타지역 수요 의존도는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3) 부가가치 역내외 창출 비중

아시아가 역내국간 생산과 교역 협력을 통하여 자급가능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와 이의 변화과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절에서 논한 국내 총부가가치(GDP) 해외의존도 분석에서 나아가 그 가운데 역내와 역외 의존도 비중과 그 변화추이를 추가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최종수요와 수출에 함유된 외국 부가가치는 그 원천이 역내 부가가치와 역외 부가가치로 다시 구분되며 양자의 배분 비중은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 자립도와 역내 성장동력 확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먼저, 최종수요를 통한 역내 부가가치 창출과 관

련, 각국의 최종수요는 자체 생산한 국내 부가가치와 외국산 부가가치로 충당되며, 외국부가가치는 다시 자국을 제외한 역내 부가가치와 역외 부가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DFD_c = DVA_c + FVA = DVA_c + FVA_r + FVA_g \quad (1)$$

여기서 DFD_c 는 국내 최종수요, DVA_c 는 내국부가가치, FVA 는 외국부가가치, FVA_r 은 역내부가가치, FVA_g 는 역외부가가치를 표시한다.

식 1을 고쳐 쓰면,

$$1 = \frac{DVA_c}{DFD_c} + \frac{FVA_r}{DFD_c} + \frac{FVA_g}{DFD_c} \quad (2)^{11)}$$

여기서 우변의 식은 각각, 일국의 최종수요에 함유된 국내 부가가치 비중, 역내 부가가치 비중, 역외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낸다.

부가가치의 역내외 배분과 관련, TIVA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종수요와 수출에 함유된 역내 부가가치 비중은 EU가 EA에 비해 크며, EU는 동 수준이 12% 내외 선에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EA는 변화 폭이 크다(그림 6, 표 2). EA 최종수요에 함유된 역내 부가가치 비중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 상승하여 7.1%에 달한 후 금융위기 이후 정체되고 있는 반면, 수출 유발 역내 부가가치 비중은 2005년 이후부터 감소세에 접어든 이후 큰 폭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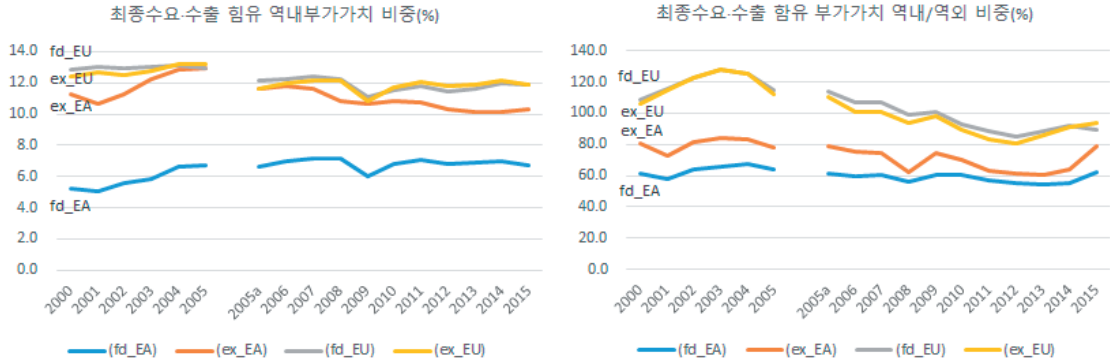


그림 6. EA와 EU 최종수요, 수출에 함유된 부가가치 역내외 배분

주: fd_EA는 EA 최종수요, ex_EA는 EA의 수출을 표시함

표 2. EA와 EU 최종수요, 수출에 함유된 부가가치 역내외 배분(%)

fd_EA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5a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외국	13.7	13.8	14.2	14.7	16.4	17.4	17.4	18.5	19.1	19.8	16.0	18.0	19.4	19.1	19.5	19.7	17.6
(역내)	5.2	5.1	5.5	5.8	6.6	6.8	6.6	6.9	7.2	7.1	6.1	6.8	7.0	6.8	6.9	7.0	6.7
(역외)	8.5	8.7	8.6	8.9	9.8	10.6	10.7	11.6	11.9	12.7	10.0	11.2	12.3	12.3	12.6	12.7	10.9
역내/역외	61.5	57.9	64.3	65.4	67.4	63.7	61.5	59.9	60.2	56.1	60.8	60.8	57.1	55.6	54.5	55.3	62.0
fd_EU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5a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외국	24.7	24.3	23.5	23.2	23.5	24.2	22.7	23.7	24.1	24.6	22.2	24.0	25.1	24.9	24.8	24.9	25.1
(역내)	12.9	13.1	12.9	13.0	13.1	12.9	12.1	12.2	12.4	12.3	11.1	11.5	11.8	11.4	11.7	11.9	11.9
(역외)	11.9	11.3	10.5	10.2	10.4	11.3	10.6	11.4	11.7	12.4	11.0	12.5	13.3	13.5	13.1	13.0	13.2
역내/역외	108	116	123	128	125	114	114	107	106	99.3	100	92.5	88.7	85.0	88.8	92.1	89.8
ex_EA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5a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외국	25.3	25.2	25.3	26.9	28.3	29.6	26.4	27.4	27.2	28.2	24.8	26.2	27.8	27.2	26.8	26.0	23.4
(역내)	11.3	10.6	11.3	12.3	12.8	13.0	11.7	11.8	11.6	10.9	10.6	10.8	10.7	10.3	10.1	10.2	10.3
(역외)	14.0	14.6	14.0	14.6	15.4	16.6	14.8	15.6	15.6	17.4	14.2	15.4	17.0	16.9	16.6	15.8	13.1
역내/역외	80.3	72.6	81.1	84.1	83.3	78.1	79.0	75.7	74.2	62.4	74.7	70.1	63.1	61.0	60.9	64.3	78.8
ex_EU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5a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외국	24.2	23.8	22.8	22.8	23.7	24.9	22.2	23.8	24.3	25.1	21.8	24.7	26.4	26.5	25.8	25.4	24.5
(역내)	12.4	12.7	12.5	12.8	13.2	13.2	11.6	12.0	12.2	12.1	10.8	11.7	12.0	11.8	11.9	12.1	11.9
(역외)	11.7	11.1	10.3	10.0	10.5	11.8	10.5	11.8	12.1	13.0	11.0	13.1	14.4	14.6	13.9	13.3	12.7
역내/역외	106	114	122	128	125	112	110	101	100	93.5	98.3	89.4	83.7	81.0	85.9	91.5	93.8

자료: TIVA, 2016, 2018, 저자 산출

주: fd_EA는 EA 최종수요, ex_EA는 EA의 수출을 표시함

지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역내 수직분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했던 EA가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기 시작한 국제금융위기 훨씬 이전부터 중간재 교역을 통한 역내 밸류체인이 축소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EA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그간 역내에서 수입하던 중간재를 점차 자급자족함으로써 수출에 함유된 국내 부가가치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2005년 73.7%, 2010년 79.0%, 2015년 82.7%)

또한, EA와 EU 공통적으로 2000년대 초반 이후 금융위기 시까지 교역 확장기 최종수요와 수출에 함유된 외국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하면서 역내와 역외 비중이 같이 증가했으나 역외 비중 증가가 상대적으로 커서 역내/역외 비중이 감소하고, 2012년 이후 교역 위축기에는 외국부가가치 비중이 감소하면서 역외비중 감소가 역내비중 감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역내/역외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교역 확장기 최종수요와 수출이 유발하는 부가가치 역내 비중이 절대적으로 늘어나거나 교역위축기 역내/역외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이를 EA의 역외수요로부터 디커플링 현상으로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4. EA와 EU 최종수요 및 수출유발 부가가치 창출능력

1) 최종수요 및 수출유발 부가가치 기부능력과 수혜능력 산출

3장에서 개괄 분석한 바와 같이 권역 단위의 최종수요 및 수출에 함유된 부가가치의 역내외 비중과 연도별 변화 추이로 권역간 부가가치 교역 패턴의 비교와 흐름에 대한 개괄적인 파악은 가능하나,

국가간 상호, 그리고 국가와 역내간 부가가치 창출 패턴과 이의 진화에 관한 세부 분석을 위해서는 일국의 최종수요와 수출이 증가했을 때 최종재와 중간재의 교역 네트워크를 통해 역내 타국에 유발하는 부가가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국제투입산출표를 토대로 일국의 수요와 수출의 증가가 국제생산유발계수 행렬 벡터를 통하여 역내 타국에 유발하거나 타국으로부터 수혜하는 부가가치 벡터를 통해 산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 역내 기부 능력과 수혜 능력 지표를 통해 측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Inomata *et al.*(2015)가 제시한 개념에 의거, 기준국의 수요나 수출이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교역 상대국에 유발하는 부가가치 규모를 '부가가치 기부능력(give-out potential)', 그리고 교역 상대국 수요나 수출이 1단위 증가했을 때 자국이 얻는 부가가치 규모를 '부가가치 수혜능력(gain potential)'이라고 정의한다(이하 각각 GO Po, GI Po로 표기한다). 이는 총 규모 비교분석 방법과 달리 국가간 교역규모 차이를 표준화하여 국가간 그리고 연도간 부가가치 창출능력의 상대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다음 표 3은 3개국(지역)으로 구성된 간략한 국제투입산출표이다. 여기서 X^i 는 총산출벡터, Z^i 는 중간재 수요행렬, Y^i 는 최종수요 행렬, 그리고 V^i 는 부가가치 벡터를 표시한다.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산출균형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총 산출물은 중간재나 최종재 산출물의 합이다.

$$Z+Y=X \quad (3)$$

(식 3)을 투입계수 행렬(A)과 생산유발계수(레온티에프 역행렬)(L)을 사용하여 정리하면,

$$x=Ax+y=(I-A)^{-1}y=Ly \quad (4)$$

이를 해외로 확대하면,

$$x=(A^Dx+y^D)+(A^E x+y^E)=LY^D+E \quad (5)$$

표 3. 국제산업연관표(3개국 축소 모델)

	중간재 수요			최종수요			총산출
	국가(지역)1	국가(지역)2	국가(지역)3	국가(지역)1	국가(지역)2	국가(지역)3	
국가(지역)1	Z^{11}	Z^{12}	Z^{13}	Z^{11}	Z^{12}	Z^{13}	X^1
국가(지역)2	Z^{21}	Z^{22}	Z^{23}	Z^{21}	Z^{22}	Z^{23}	X^2
국가(지역)3	Z^{31}	Z^{32}	Z^{33}	Z^{31}	Z^{32}	Z^{33}	X^3
부가가치	V^1	V^2	V^3				
총투입	X^1	X^2	X^3				

주: 총산출과 총투입은 일치함.

(1) 최종수요 유발 부가가치 기부 및 수혜 능력

국제투입산출표의 수요유발 부가가치 산출 균형식을 3개국 모델 행렬식으로 표시하면,

$$\begin{pmatrix} v^1 \\ v^2 \\ v^3 \end{pmatrix} = \begin{bmatrix} \widehat{V}^1 & 0 & 0 \\ 0 & \widehat{V}^2 & 0 \\ 0 & 0 & \widehat{V}^3 \end{bmatrix} \begin{bmatrix} L^{11} & L^{12} & L^{13} \\ L^{21} & L^{22} & L^{23} \\ L^{31} & L^{32} & L^{33} \end{bmatrix} \begin{bmatrix} y^{11} & y^{12} & y^{13} \\ y^{21} & y^{22} & y^{23} \\ y^{31} & y^{32} & y^{33} \end{bmatrix} \quad (6)$$

여기서 \widehat{V}^i 는 i 국가의 부가가치 계수벡터로서 i 국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총산출로 나눈 값이며(산출물 1단위 증가시 유발되는 부가가치), 따라서 $\widehat{V}^i y^j$ 는 j 국 최종수요 1단위 증가시 유발되는 i 국가의 부가가치이다. 국가 1의 최종수요는 산출 원산지 국가별로 자국 산출물 수요인 y^{11} , 2국 산출물에 대한 수요인 y^{21} , 3국 산출물 수요인 y^{31}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국 최종수요가 나머지 2, 3 국가에 창출하는 부가가치 벡터, 즉 부가가치 기부규모($TVAgo_{fd}^1$)는 다음과 같이 행렬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TVAgo_{fd}^1 = |0 \ v^2 \ v^3| \begin{bmatrix} L^{11} & L^{12} & L^{13} \\ L^{21} & L^{22} & L^{23} \\ L^{31} & L^{32} & L^{33} \end{bmatrix} \begin{bmatrix} y^{11} \\ y^{21} \\ y^{31} \end{bmatrix} \quad (7)$$

또한 자국 최종수요외에 타국 2, 3국의 최종수요로 인해 유발되는 1국의 부가가치, 즉 1국의 부가가치 수혜규모($TVAgo_{fd}^1$)는 다음과 같이 행렬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TVAgo_{fd}^1 = |v^1 \ 0 \ 0| \begin{bmatrix} L^{11} & L^{12} & L^{13} \\ L^{21} & L^{22} & L^{23} \\ L^{31} & L^{32} & L^{33} \end{bmatrix} \begin{bmatrix} y^{12} & y^{13} \\ y^{22} & y^{23} \\ y^{32} & y^{33} \end{bmatrix} \quad (8)$$

(2) 수출 유발 부가가치 기부 및 수혜 능력

국제투입산출표의 수출유발 부가가치 산출 균형식을 3개국 모델 행렬식으로 표시하면,

$$\begin{pmatrix} v_e^1 \\ v_e^2 \\ v_e^3 \end{pmatrix} = \begin{bmatrix} \widehat{V}^1 & 0 & 0 \\ 0 & \widehat{V}^2 & 0 \\ 0 & 0 & \widehat{V}^3 \end{bmatrix} \begin{bmatrix} B^{11} & B^{12} & B^{13} \\ B^{21} & B^{22} & B^{23} \\ B^{31} & B^{32} & B^{33} \end{bmatrix} \begin{bmatrix} e^1 \\ e^2 \\ e^3 \end{bmatrix} \quad (9)$$

여기서 1국 수출에 의해 나머지 2, 3 국가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즉 1국 수출이 타국 2, 3국에 유발하는 부가가치 기부규모($TVAgo_{ex}^1$)는 다음과 같이 행렬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TVAgo_{ex}^1 = |0 \ v^2 \ v^3| \begin{bmatrix} L^{11} & L^{12} & L^{13} \\ L^{21} & L^{22} & L^{23} \\ L^{31} & L^{32} & L^{33} \end{bmatrix} \begin{bmatrix} e^1 \\ 0 \\ 0 \end{bmatrix} \quad (10)$$

또한 타국 2, 3국의 수출로 인해 창출되는 1국의 부가가치, 즉 1국이 타국 2, 3국의 수출로부터 얻는 부가가치 수혜규모($TVAgi_{ex}^1$)는 다음과 같이 행렬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TVAgi_{ex}^1 = |v^1 \ 0 \ 0| \begin{bmatrix} L^{11} & L^{12} & L^{13} \\ L^{21} & L^{22} & L^{23} \\ L^{31} & L^{32} & L^{33} \end{bmatrix} \begin{bmatrix} 0 \\ e^2 \\ e^3 \end{bmatrix} \quad (11)$$

2) EA 수요 및 수출유발 부가가치 국경간 창출

(1) 최종수요유발 부가가치 창출 테이블

앞 식 7과 식 8에 따라 OECD-WTO TiVA 자료를 활용하여 2015년 기준 EA 각국의 최종수요가 1단위씩 증가했을 때 이로부터 창출되는 역내 다른 국가의 부가가치 규모를 행렬표로 상호 연결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각 국가열의 종단 데이터는 기준국의 최종수요 1단위가 증가하였을 때 교역을 통해 각행에 위치한 국가에 유발하는 부가가치 규모, 즉 기준국의 역내 타국에 대한 '최종수요 유발 부가가치 기부능력'을 표시한다. 또한 각 국가행의 횡단 데이터는 기준국이 각 열에 위치한 역내 타국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했을 때 이들과 교역을 통해 얻는 부가가치 규모, 즉 기준국의 타국으로부터 '최종수요 유발 부가가치 수혜능력'을 표시한다.

예를 들면, CHN 열과 KOR 행이 마주치는 0.0102 수치는 중국의 최종수요가 1단위 늘어났을 때 한국에 유발시키는 부가가치 규모, 즉 중국의 한국에 대한 부가가치 기부능력이며, VNM 행

과 KOR 열이 마주치는 0.0032 수치는 베트남이 한국의 최종수요 1단위가 늘어났을 때 얻는 부가가치 규모, 즉 베트남의 한국으로부터의 부가가치 수혜능력이다. 여기서 CHN 열의 각국 행에 대한 수치를 전부 합한 0.0452는 중국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했을 때 타 EA 11개국에 유발하는 부가가치의 합, 즉 중국의 EA 역내 최종수요 유발 부가가치 기부능력(GO Po)이며, VNM 행의 각 열에 대한 수치를 전부 합한 0.0471은 EA 각국의 최종수요가 각각 1단위 증가했을 때 이로부터 얻는 베트남의 부가가치의 합, 즉 베트남의 역내 최종수요 유발 부가가치 수혜능력(GI Po)이다.¹²⁾ 투입산출표 구조상 각국의 역내 최종수요 유발 부가가치 기부능력(GO Po)의 합과 각국의 역내 최종수요 유발 부가가치 수혜능력의 합(GI Po)은 1.7466으로 동일하다.

(2) 수출유발 부가가치 창출 테이블

앞 식 10과 11에 따라 OECD-WTO TiVA 자료를 활용하여 2015년 기준 EA 각국의 수출이 1단위씩 증가했을 때 이들 국가의 중간재 수입으로부터

표 4. EA 최종수요유발 부가가치 국경간 창출효과(2015)

2015	JPN	KOR	CHN	HKG	IDN	KHM	MYS	PHL	SGP	TWN	THA	VNM	GI Po
JPN		0.0222	0.0127	0.0253	0.0163	0.0192	0.0314	0.0202	0.0465	0.0470	0.0430	0.0350	0.3188
KOR	0.0054		0.0102	0.0080	0.0079	0.0127	0.0120	0.0126	0.0125	0.0115	0.0120	0.0429	0.1476
CHN	0.0324	0.0480		0.0788	0.0354	0.0960	0.0602	0.0402	0.0326	0.0510	0.0689	0.1101	0.6534
HKG	0.0009	0.0019	0.0029		0.0017	0.0099	0.0056	0.0047	0.0086	0.0036	0.0032	0.0031	0.0462
IDN	0.0036	0.0050	0.0023	0.0043		0.0107	0.0161	0.0094	0.0157	0.0078	0.0098	0.0082	0.0929
KHM	0.0001	0.0001	0.0001	0.0002	0.0001		0.0004	0.0001	0.0005	0.0001	0.0013	0.0038	0.0064
MYS	0.0026	0.0028	0.0025	0.0040	0.0072	0.0061		0.0065	0.0228	0.0060	0.0106	0.0077	0.0789
PHL	0.0016	0.0021	0.0012	0.0042	0.0012	0.0012	0.0038		0.0061	0.0024	0.0048	0.0025	0.0312
SGP	0.0030	0.0041	0.0024	0.0109	0.0102	0.0102	0.0231	0.0111		0.0075	0.0112	0.0106	0.1044
TWN	0.0034	0.0055	0.0069	0.0081	0.0033	0.0109	0.0109	0.0101	0.0097		0.0087	0.0150	0.0923
THA	0.0033	0.0030	0.0028	0.0063	0.0071	0.0421	0.0169	0.0115	0.0116	0.0053		0.0175	0.1273
VNM	0.0019	0.0032	0.0012	0.0017	0.0021	0.0187	0.0050	0.0036	0.0037	0.0022	0.0039		0.0471
GO Po	0.0581	0.0977	0.0452	0.1518	0.0925	0.2375	0.1854	0.1299	0.1701	0.1445	0.1774	0.2564	1.7466

자료: TiVA 2018, 저자 산출

표 5. EA 수출유발 부가가치 국경간 창출효과(2015)

2015	JPN	KOR	CHN	HKG	IDN	KHM	MYS	PHL	SGP	TWN	THA	VNM	GI Po
JPN		0,0294	0,0162	0,0031	0,0102	0,0131	0,0299	0,0222	0,0442	0,0406	0,0425	0,0331	0,2845
KOR	0,0054		0,0198	0,0276	0,0065	0,0113	0,0159	0,0126	0,0110	0,0142	0,0123	0,0506	0,1873
CHN	0,0251	0,0693		0,0542	0,0252	0,1042	0,0767	0,0424	0,0225	0,0538	0,0702	0,1411	0,6848
HKG	0,0009	0,0017	0,0011		0,0013	0,0105	0,0037	0,0024	0,0072	0,0028	0,0016	0,0031	0,0361
IDN	0,0047	0,0064	0,0026	0,0029		0,0044	0,0124	0,0058	0,0161	0,0120	0,0097	0,0082	0,0852
KHM	0,0000	0,0001	0,0001	0,0001	0,0000		0,0002	0,0001	0,0002	0,0001	0,0009	0,0028	0,0045
MYS	0,0026	0,0042	0,0042	0,0030	0,0065	0,0038		0,0061	0,0137	0,0070	0,0107	0,0071	0,0690
PHL	0,0014	0,0024	0,0024	0,0037	0,0007	0,0006	0,0038		0,0052	0,0022	0,0035	0,0022	0,0281
SGP	0,0026	0,0061	0,0039	0,0112	0,0076	0,0084	0,0244	0,0134		0,0088	0,0091	0,0097	0,1051
TWN	0,0031	0,0111	0,0156	0,0059	0,0026	0,0111	0,0152	0,0146	0,0093		0,0096	0,0204	0,1184
THA	0,0026	0,0028	0,0036	0,0039	0,0044	0,0254	0,0122	0,0083	0,0064	0,0033		0,0159	0,0887
VNM	0,0016	0,0026	0,0015	0,0014	0,0016	0,0116	0,0043	0,0017	0,0036	0,0014	0,0033		0,0346
GO Po	0,0501	0,1362	0,0708	0,1169	0,0665	0,2045	0,1987	0,1296	0,1393	0,1461	0,1735	0,2941	1,7263

자료: TIVA 2018, 저자 산출

유발되는 다른 국가의 부가가치 규모를 행렬표로 상호 연결하면 표 5와 같다. 최종수요 유발 부가가치 배분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구성과 방식으로, 각 국가 열의 중단 데이터는 기준국의 수출이 역내 타국에 유발하는 부가가치 기부능력을 표시하며 각 국가 행의 횡단 데이터는 기준국이 역내 타국의 수출로부터 얻는 부가가치 수혜 능력을 표시한다.

예를 들면, CHN 열의 각국 행에 대한 수치를 전부 합한 0.0708은 중국의 수출이 1단위 증가했을 때 타 EA 11개국에 유발하는 부가가치의 합, 즉 중국의 역내 수출유발 부가가치 기부능력(GO Po)이며, VNM 행의 각 열에 대한 수치를 전부 합한 0.0346은 EA 각국의 수출이 각각 1단위 증가했을 때 이로부터 얻는 베트남의 부가가치의 합, 즉 베트남의 역내 수출유발 부가가치 수혜능력(GI Po)이다.

3) EA와 EU 최종수요 및 수출유발 부가가치 기부 및 수혜능력 변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EA와 EU 각국의 최종수요와 수출이 각각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창출하는 역내 부가가치 기부(수혜)규모의 총합(EA의 GO Po, GI Po)에 대한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7과 같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국의 기부능력과 수혜능력은 서로 다르나, 역내 전체의 기부능력의 합은 수혜능력의 합과 동일하다. EA와 EU 모두, 그리고 최종수요와 수출의 경우 공히, 2000년대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역내 창출능력은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반전하여 2008년 금융위기 초기까지 지속 하락하였고, 2009년 폭락과 이후 반등을 거쳐 다시 하락하였다(2013년 이후 반등). 아시아 디커플링 가설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체 성장 동력 확보와는 반대 방향으로의 변화이다.

EA가 EU와 비교해 특이한 점은 첫째, 수요와 수출 유발 부가가치 창출능력의 증가와 감소 변화 폭이 큰 역동성을 보이고 있고, 둘째, 2004년 이전에

는 수출유발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최종수요 유발 부가가치 창출 능력보다 컸으나 금융위기 전후로 역전되었는데, 이는 한국과 중국, ASEAN 주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수출에서 내수위주로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고, 수출 진흥정책도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간재보다는 최종재 위주로 바뀌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4) 교역 부가가치 역내 기부 및 수혜 능력 국가별 비교

본 절에서는 EA와 EU의 역내 최종수요와 수출유발 부가가치 기부능력과 수혜능력을 국가별로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

(1) EA 최종수요유발 부가가치 역내 기부 및 수혜 능력

먼저, EA 각국의 최종수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자(growth engine)로서 역할을 살펴본다. 2005-2015 기간 중 EA의 국별 최종수요 역내 부가가치 창출 기부능력의 변화를 보면 표 6과 같다. 기부능력 크기로 보면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신흥 ASEAN 국가나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 순이며, 중국과 일본, 한국 등 선진경제 그룹이 크기가 작다. 각국 공통으로, 2005년까지는 기부능력이 증가했으나 이후 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5년 이후 전체 변화를 보면, 금융위기 시 폭락과 반등, 정체를 거쳐 2015년은 거의 2005년 수준을 회복하였는데, 2005년 대비 기부능력이 늘어난 국가는 베트남과 일본, 홍콩 등으로 소수이며, 중국, 대만, 태국, 캄보디아 등 대부분의 국가가 기부능력이 감소했다.

경제비중이 큰 허브국가인 일본과 중국, 그리고 신흥 개도국 베트남의 부가가치 기부능력 변화를 상세히 살펴보면, 중국의 기부능력은 2005년부터 국제금융위기를 거쳐 2015년까지 지속 감소하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0.083에서 0.045로 거의 절반 수준). 반면 일본의 부가가치 능력은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눈에 띈다. 신흥 개도국인 베트남은 2007년까지 지속 증가 후 금융위기 이후 감소시기를 거쳐 2013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어서, 2005-2015 기간 중 EA 국별 최종수요 역내 부가가치 창출 수혜능력의 변화를 국별로 보면 표 7과 같다. 부가가치 수혜능력 크기로 보면 중국, 일본, 한국, 태국 등 선진 경제권 순이며, 낮은 국가들은 캄보디아, 필리핀, 홍콩, 베트남 순으로, 기부능력 크기순과 거의 반대이다. 해당기간 중 수혜능력이 늘어난 국가는 중국뿐이며 증가 폭이 매우 크다.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은 수혜능력을 유지하였으나 기타 국가들은 수혜 능력이 모두 감소하였다. 그중 일본의 수혜능력이 크게 감소하였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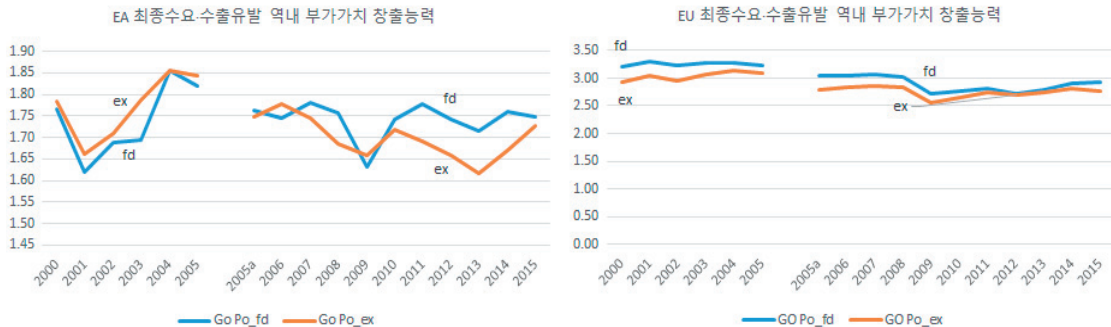


그림 7. EA·EU 최종수요·수출유발 역내 부가가치 창출능력

표 6. EA 최종수요유발 부가가치 역내 기부능력 변화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5-15
JPN	0,031	0,035	0,038	0,040	0,032	0,037	0,042	0,045	0,052	0,058	0,058	0,027
KOR	0,088	0,090	0,096	0,111	0,101	0,105	0,119	0,114	0,104	0,097	0,098	0,010
CHN	0,083	0,077	0,071	0,062	0,054	0,060	0,058	0,052	0,049	0,049	0,045	-0,038
HKG	0,117	0,127	0,131	0,135	0,140	0,149	0,149	0,156	0,159	0,161	0,152	0,035
IDN	0,097	0,087	0,088	0,108	0,087	0,094	0,096	0,101	0,099	0,099	0,092	-0,004
KHM	0,290	0,287	0,297	0,255	0,233	0,245	0,261	0,260	0,261	0,281	0,238	-0,052
MYS	0,193	0,184	0,196	0,182	0,181	0,193	0,190	0,190	0,182	0,180	0,185	-0,007
PHL	0,114	0,120	0,104	0,103	0,104	0,119	0,121	0,111	0,107	0,113	0,130	0,016
SGP	0,164	0,169	0,173	0,183	0,167	0,165	0,164	0,162	0,153	0,158	0,170	0,006
TWN	0,158	0,157	0,153	0,142	0,140	0,157	0,150	0,132	0,129	0,140	0,144	-0,014
THA	0,190	0,172	0,163	0,177	0,153	0,174	0,185	0,201	0,182	0,178	0,177	-0,012
VNM	0,236	0,239	0,271	0,258	0,238	0,245	0,241	0,217	0,237	0,243	0,256	0,020
GoPo_fd	1,761	1,744	1,781	1,758	1,630	1,742	1,777	1,741	1,714	1,759	1,747	-0,015

자료: TIVA 2018, 저자 산출

표 7. EA 최종수요유발 부가가치 역내 수혜능력 변화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5-15
JPN	0,543	0,475	0,442	0,446	0,391	0,447	0,413	0,384	0,317	0,318	0,319	-0,224
KOR	0,159	0,159	0,181	0,150	0,136	0,154	0,147	0,150	0,149	0,148	0,148	-0,011
CHN	0,325	0,358	0,407	0,450	0,431	0,448	0,517	0,550	0,595	0,637	0,653	0,328
HKG	0,096	0,098	0,103	0,081	0,068	0,064	0,061	0,053	0,052	0,055	0,046	-0,050
IDN	0,095	0,099	0,096	0,106	0,106	0,116	0,131	0,117	0,107	0,104	0,093	-0,002
KHM	0,009	0,008	0,007	0,007	0,005	0,005	0,007	0,007	0,006	0,007	0,006	-0,003
MYS	0,105	0,101	0,104	0,111	0,096	0,100	0,102	0,093	0,091	0,091	0,079	-0,026
PHL	0,022	0,026	0,027	0,027	0,027	0,031	0,030	0,030	0,028	0,029	0,031	0,009
SGP	0,107	0,115	0,117	0,111	0,108	0,106	0,108	0,102	0,102	0,105	0,104	-0,002
TWN	0,146	0,137	0,127	0,102	0,100	0,104	0,096	0,089	0,086	0,089	0,092	-0,054
THA	0,116	0,126	0,127	0,123	0,111	0,122	0,111	0,112	0,116	0,113	0,127	0,011
VNM	0,039	0,041	0,041	0,046	0,050	0,045	0,055	0,055	0,064	0,064	0,047	0,008
GI Po_fd	1,761	1,744	1,781	1,758	1,630	1,742	1,777	1,741	1,714	1,759	1,747	-0,015

자료: TIVA 2018, 저자 산출

며,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한국 순으로 수혜 능력이 감소하였다. ASEAN 국가들의 수혜능력에는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일본과 NIEs 국가들의 수혜 능력이 기간 중 현저히 감소한 것은 역내 최종재 시장에서 이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2) EA 수출유발 부가가치 역내 기부 및 수혜 능력

다음 EA 각국의 수출을 통한 타국 부가가치 전

도자(conduit)로서의 역할을 살펴본다. 2015년 기준 수출유발 부가가치 기부능력 크기로 보면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신흥 ASEAN 국가나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 순이며, 일본과 중국 등 자국내 밸류체인이 발달한 국가는 그 크기가 작다(표 8). EA 수출유발 부가가치 역내 기부능력 변화를 국별로 보면, 각국 공통으로 2005년까지는 기부능력이 증가했으나 이후 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013년까지 지속 하락한 이후(2009년 예외) 2014년부터 반등하고 있다. 2015년 기준 2005년 대비 기부능력이 늘어난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이며, 기부능력이 감소한 국가는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인데, 수요 유발 부가가치 기부능력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수출유발 부가가치 기부능력 감소 폭이 매우 크다(0.137에서 0.071로 거의 절반 수준).

이중 경제비중이 큰 허브 국가인 일본과 중국, 그리고 신흥 개도국 베트남의 수출 유발 부가가치 기부능력 변화를 상세히 보면, 중국의 기부능력은

2005년부터 금융위기시와 이후 2015년까지 지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부가가치 기부 능력은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2015년 기준 중국과 일본의 기부능력 수준이 각각 0.071과 0.050으로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신흥 개도국인 베트남은 2000-2015 기간 중 금융위기시를 제외하고는 지속 증가추세에 있어 2015년 기준 수출 1단위당 유발 역내 부가가치 기부능력 수준이 0.3에 달하면서 역내 최고 수준이다.

이어서 EA 역내 수출유발 부가가치 각국 수혜능력 변화를 국별로 보면 표 9와 같다. 수요유발 부가가치 수혜능력과 마찬가지로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역내 선진경제권의 능력이 크며, ASEAN국가에서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순이다. 2005-2015 기간 중 변화를 살펴보면, 기간 중 중국만이 수혜능력을 크게 늘렸으며 이를 제외하곤 수혜 능력이 늘어난 국가가 거의 없고, 필리핀, 태국, 베트남만이 수혜능력을 유지했다. 반면, 일본의 수혜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대만, 홍콩,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감소가 눈에 띈다. 중국이 자

표 8. EA 수출유발 부가가치 역내 기부능력 변화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5-15
JPN	0,032	0,038	0,040	0,043	0,035	0,038	0,044	0,044	0,047	0,051	0,050	0,018
KOR	0,136	0,136	0,138	0,156	0,155	0,150	0,159	0,150	0,140	0,134	0,136	0,000
CHN	0,133	0,126	0,116	0,093	0,084	0,087	0,081	0,077	0,076	0,072	0,071	-0,063
HKG	0,099	0,112	0,108	0,120	0,117	0,123	0,125	0,130	0,125	0,121	0,117	0,018
IDN	0,073	0,058	0,059	0,063	0,056	0,058	0,056	0,058	0,061	0,063	0,066	-0,007
KHM	0,224	0,221	0,220	0,208	0,197	0,204	0,200	0,205	0,202	0,211	0,204	-0,019
MYS	0,232	0,222	0,228	0,190	0,209	0,213	0,200	0,192	0,187	0,186	0,199	-0,033
PHL	0,130	0,159	0,117	0,116	0,119	0,130	0,117	0,121	0,104	0,110	0,130	-0,000
SGP	0,116	0,134	0,128	0,133	0,129	0,123	0,134	0,125	0,125	0,133	0,139	0,023
TWN	0,178	0,183	0,180	0,167	0,172	0,179	0,170	0,141	0,136	0,151	0,146	-0,032
THA	0,178	0,165	0,165	0,160	0,159	0,171	0,166	0,174	0,158	0,171	0,173	-0,005
VNM	0,218	0,224	0,247	0,237	0,225	0,242	0,241	0,241	0,256	0,266	0,294	0,076
Go Po_ex	1,749	1,778	1,745	1,686	1,657	1,717	1,692	1,658	1,618	1,670	1,726	-0,023

자료: TIVA 2018, 저자 산출

표 9. EA 수출유발 부가가치 역내 수혜능력 변화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5-15
JPN	0.499	0.457	0.424	0.401	0.380	0.406	0.363	0.335	0.277	0.280	0.284	-0.214
KOR	0.208	0.211	0.204	0.174	0.172	0.195	0.181	0.184	0.181	0.180	0.187	-0.021
CHN	0.353	0.390	0.422	0.463	0.459	0.462	0.516	0.548	0.582	0.630	0.685	0.332
HKG	0.075	0.084	0.083	0.068	0.062	0.056	0.047	0.038	0.038	0.043	0.036	-0.039
IDN	0.086	0.096	0.091	0.102	0.102	0.113	0.136	0.118	0.108	0.101	0.085	-0.001
KHM	0.006	0.005	0.005	0.004	0.003	0.003	0.004	0.004	0.004	0.005	0.004	-0.001
MYS	0.091	0.095	0.093	0.101	0.087	0.089	0.087	0.081	0.080	0.081	0.069	-0.022
PHL	0.019	0.026	0.024	0.024	0.026	0.030	0.027	0.025	0.025	0.025	0.028	0.009
SGP	0.108	0.115	0.116	0.104	0.111	0.110	0.103	0.098	0.094	0.099	0.105	-0.003
TWN	0.190	0.182	0.165	0.125	0.132	0.130	0.115	0.109	0.104	0.105	0.118	-0.071
THA	0.084	0.087	0.086	0.085	0.086	0.093	0.077	0.078	0.079	0.077	0.089	0.004
VNM	0.029	0.030	0.032	0.033	0.038	0.029	0.038	0.039	0.045	0.045	0.035	0.006
GI Po_ex	1.749	1.778	1.745	1.686	1.657	1.717	1.692	1.658	1.618	1.670	1.726	-0.023

자료: TIVA 2018, 저자 산출

국 수출에 있어 중간재의 자급도를 높이고(GVC 후방참여도 감소) 타국에 자국 중간재의 공급을 늘리고 있는 것이(GVC 전방참여도 증가) 확인되었다¹³⁾.

이중 경제비중이 큰 허브 국가인 일본과 중국, 그리고 신흥 개도국 베트남의 수출 유발 부가가치 수혜능력 변화를 세부적으로 보면, 일본의 수혜능력은 2005-2015 기간 중 0.499에서 0.284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중국의 수혜 능력은 0.353에서 0.685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감소폭이 0.214인데 반해 중국의 증가폭이 0.3325로 훨씬 큰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수혜능력 증가가 일본뿐만 아니라 경쟁관계에 있는 NIEs를 대체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신흥 개도국인 베트남은 아직도 낮은 수준이긴 하나 2005-2015 기간 중 금융위기시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 수혜능력이 소폭 증가추세에 있다.

(3) EA와 EU의 중심국과 주변국 교역패턴 변화 비교

2005-2015 기간중 EA와 EU 각국의 최종수요

와 수출 유발 부가가치 기부 및 수혜능력 변화 정도를 비교해 보면 그림 8과 같다. 중국은 2005-2015 기간 중 역내 최종수요와 수출 유발 부가가치 기부 능력에서 공히 감소를 보인 반면 부가가치 수혜 능력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독일은 최종수요와 수출 유발 부가가치 기부능력을 소폭이나마 늘리고, 수혜능력에서는 수출유발 부가가치 수혜능력이 크게 늘어난 반면, 최종수요유발 부가가치 수혜능력에서는 소폭 감소를 보였다.

중국과 독일의 이러한 대조적인 허브 역할은 주변국의 부가가치 창출 패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¹⁴⁾ EU는 2005-2015 기간 중 독일을 중심으로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소위 중동구권 클러스터 국가들이 생산 및 교류협력을 통해 최종수요와 수출 유발 부가가치 역내 기부 및 수혜능력을 공히 늘렸다. 반면, 서부 선진 경제권의 프랑스, 이태리, 덴마크, 스웨덴 등은 부가가치 기부 능력은 물론 수혜 능력에서도 중동구권 국가에 뒤지며 그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EA에서 NIEs 국가의 수혜능력이 감소한 것과 유사한 양상이다.

허브 국가인 독일이 주도하는 주변 동구권 개도국의 부가가치 기부능력과 수혜능력이 늘어난 EU와는 달리, 중국이 주도하는 EA 권역은 일본, 홍콩, 필리핀, 베트남 등 국가의 늘어난 최종수요 및 수출 유발 부가가치 기부능력 대부분을 중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수취하는 역내 교역 패턴을 보였다. 특히 한국과 대만, 홍콩 등 선진 개도국의 부가가치 수혜능력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중국의 최종재와 중간재 경쟁력 향상에 따른 수요 및 수출유발 부가가치 수혜능력의 현저한 증가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신흥개도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타 ASEAN국가들도 부가가치 기부능력이나 수혜능력 어느 한쪽에도 큰 진보를 보이지 못했으며, 역내에서 최종수요와 수출 유발 부가가치 기부능력과 수혜능력이 동시에 늘어난 국가는 베트남이 유일하다.¹⁵⁾ 베트남은 특히 수출 유발 역내 부가가치 기부능력에서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이번에는 표 10을 통해 최종수요 유발 국경간 부

가가치 기부, 수혜 능력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은 2000-2005 기간 중 기부능력(GO Po)이 32.7% 증가하면서 타국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했으나, 2005-2015 기간 중 기부능력은 45.4%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수혜능력(GI Po)은 각각 76.1%, 100.9% 늘어났는데, 중국(CHN) 행에 위치한 모든 열의 국가의 수요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수혜능력에서 빠짐없이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부가가치 기부능력(GO Po)은 2000-2005, 2005-2015 기간 중 각각 40.8%와 87.6% 늘어났으나 수혜능력(GI Po)은 같은 기간 각각 19.1%, 41.3% 줄어들었다. 중국과 달리 일본은 2000-2005 기간 중 중국으로부터 부가가치 수혜능력이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23.2%), 2000-2015 기간 중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한 부가가치 기부능력이 늘어나고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부가가치 수혜능력이 줄어들었다.

표 11을 통해 수출유발 국경간 부가가치 기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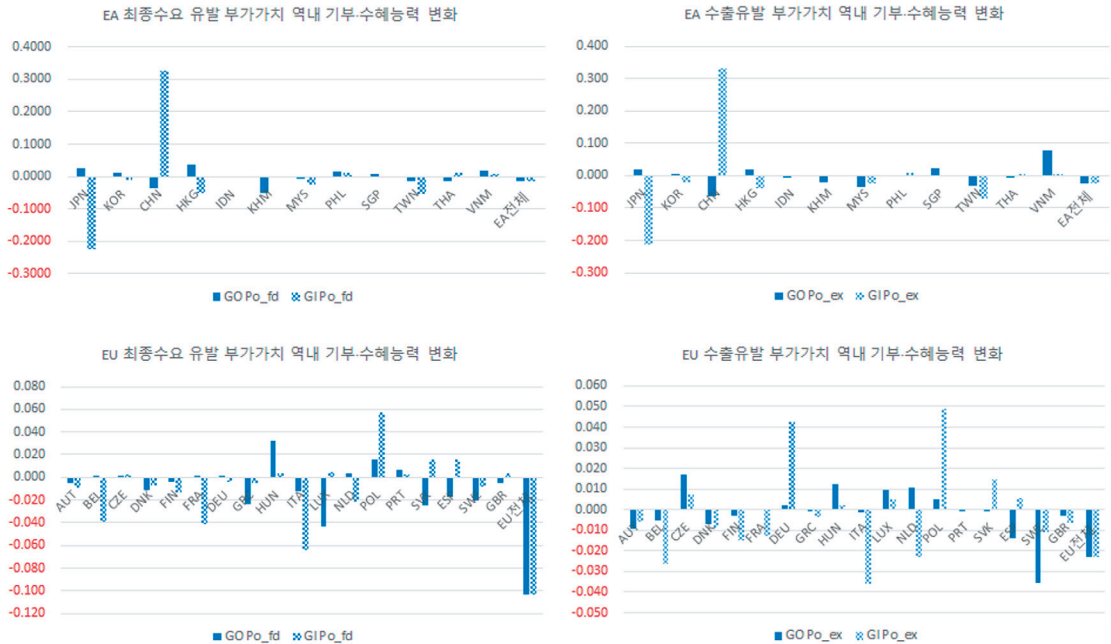


그림 8. EA·EU 최종수요·수출유발 부가가치 기부·수혜능력 변화(05-15)

해 능력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종수요 유발 부가가치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00-2015 기간 중 중국의 기부능력은 크게 줄어든 반면 수혜능력은 크게 늘어났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중국의 역내 부가가치 기부능력이 현저히 줄어든 2005-2015 기간 중 EA에서 중국의 최종수요나 수출이 유발하는 부가가치 수혜능력을 늘린 국가는 베트남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62.9%, 77.2% 증가). 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요 및 수출유발 부가가치 수혜능력이 2005년 대비 2015년 모두 감소했다. 이는 중국이 밸류체인에서 사다리를 오르며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가치창출 협력자보다는 경쟁자로서의 위상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한다.¹⁶⁾

표 10. EA 최종수요유발 부가가치 국경간 창출효과 변화(2000-2015)(%)

00-05	JPN	KOR	CHN	HKG	IDN	KHM	MYS	PHL	SGP	TWN	THA	VNM	GI Po
JPN		-18.0	23.2	-34.4	-23.3	9.2	-32.2	-11.5	-58.9	-4.7	-0.1	-11.6	-19.1
KOR	9.5		73.6	-24.4	-15.8	4.6	18.5	-29.2	-32.1	12.6	12.6	-23.0	-5.5
CHN	113.4	96.7		4.0	89.0	108.5	132.4	135.6	77.2	92.6	107.4	140.5	76.1
HKG	27.9	-20.0	5.3		-10.3	-38.3	-18.7	-31.1	-13.1	-9.5	-6.4	-21.3	-19.6
IDN	17.2	-18.0	12.0	100.7		21.6	23.5	38.6	-29.4	7.5	46.5	34.0	10.8
KHM	73.3	26.0	-15.8	-78.0	174.5		-52.7	12.2	9.2	40.7	32.0	40.2	17.1
MYS	1.1	-19.5	40.8	-25.3	12.2	36.0		58.8	-21.2	-10.4	61.0	57.8	13.6
PHL	10.8	-19.9	95.4	-33.1	150.7	39.9	14.8		-13.2	-29.6	27.6	22.6	10.4
SGP	12.9	-20.3	32.7	3.1	6.6	-19.7	-17.0	11.8		-16.0	-13.7	-12.9	-9.5
TWN	4.5	-16.2	39.4	-35.6	-8.9	-6.0	-6.7	-5.5	-27.2		-10.2	3.2	-7.0
THA	41.6	-8.6	9.3	0.7	30.3	11.8	30.9	8.1	3.6	-11.6		39.1	16.8
VNM	57.4	-3.3	31.7	-19.3	-5.5	79.7	33.3	127.4	40.4	34.7	4.7		48.3
GO Po	40.8	-0.7	32.7	-9.5	2.7	15.8	-2.6	4.9	-27.7	6.3	14.5	12.8	3.0
05-15	JPN	KOR	CHN	HKG	IDN	KHM	MYS	PHL	SGP	TWN	THA	VNM	GI Po
JPN		-44.6	-62.0	-4.6	-46.9	-44.8	-48.0	-50.1	-8.8	-44.9	-51.5	-32.0	-41.3
KOR	28.6		-38.3	-25.6	-2.8	-36.5	-35.4	29.1	15.2	-32.7	-12.4	47.7	-6.9
CHN	142.1	92.4		76.7	98.9	55.9	100.5	206.3	66.7	101.0	153.9	130.1	100.9
HKG	-3.0	-5.6	-47.3		-32.7	-73.9	-34.9	-34.0	-17.0	-33.5	-47.6	-67.6	-52.0
IDN	21.8	-5.8	-28.0	1.4		-30.1	0.8	71.7	-7.7	33.0	-2.8	-12.4	-2.0
KHM	197.7	125.0	-25.2	54.2	67.8		-9.9	-26.9	20.8	21.1	141.7	-48.5	-29.0
MYS	46.9	-15.1	-31.0	-26.5	-8.1	-55.3		4.3	-20.2	-1.6	-32.0	-39.2	-24.7
PHL	135.2	75.6	33.5	107.6	-4.0	-4.4	0.3		86.4	43.2	32.6	29.1	43.8
SGP	100.3	22.9	-23.0	31.9	-21.9	-23.7	7.0	20.7		29.9	5.0	-36.6	-2.1
TWN	21.6	9.9	-46.0	-12.1	-31.0	-69.2	-25.8	-15.8	8.5		-23.9	-49.2	-36.9
THA	56.3	34.4	-2.5	33.0	-23.7	15.7	10.0	66.4	2.5	23.2		-16.6	9.3
VNM	195.5	266.8	62.9	76.8	34.4	-8.3	43.8	-4.0	17.9	76.8	75.3		21.0
GO Po	87.6	10.8	-45.4	29.9	-4.6	-18.0	-3.9	13.8	3.6	-8.8	-6.6	8.5	-0.8

자료: TIVA 2016, 2018, 저자 산출

표 11. EA 수출유발 부가가치 국경간 창출효과 변화(2000-2015)(%)

00-05	JPN	KOR	CHN	HKG	IDN	KHM	MYS	PHL	SGP	TWN	THA	VNM	GI Po
JPN		0.6	-5.7	-14.3	-40.9	32.7	-37.4	30.2	-61.1	-9.6	-3.8	-32.4	-15.6
KOR	43.5		25.4	-20.1	-32.8	-9.2	4.4	-21.1	-29.3	18.0	14.4	-14.0	-2.5
CHN	211.9	150.0		38.4	96.4	182.0	198.1	173.6	60.7	203.4	143.3	150.1	137.0
HKG	49.6	-1.4	-40.5		-17.4	-32.3	-14.4	-47.3	0.9	29.1	-9.5	10.4	-21.0
IDN	52.4	-11.8	-19.9	186.2		11.8	42.3	-17.8	-49.0	39.0	69.4	32.7	6.2
KHM	165.6	59.7	-51.8	-85.8	241.0		-34.2	10.8	37.3	16.4	55.9	123.7	47.0
MYS	3.9	-14.0	13.3	-34.3	-4.7	-10.0		6.0	-49.7	-20.5	42.0	58.7	-8.4
PHL	4.4	-8.5	115.7	-38.4	90.5	145.9	-3.2		-32.2	-40.7	1.9	0.1	-1.0
SGP	6.4	-2.6	19.5	19.9	-7.0	-25.0	-28.1	14.1		-21.2	-15.6	-32.9	-15.5
TWN	8.8	10.0	11.4	-24.6	-29.3	-14.3	-4.0	18.0	-34.4		0.4	-8.2	-6.4
THA	64.0	16.8	7.1	20.7	30.9	2.5	27.7	-19.7	-32.2	-3.7		109.7	16.6
VNM	97.0	0.7	12.2	-21.1	46.6	81.1	92.3	146.0	54.8	20.0	11.9		57.8
GO Po	65.7	15.3	3.2	7.0	-11.8	16.3	-8.2	18.9	-38.7	7.3	13.2	7.9	3.4
05-15	JPN	KOR	CHN	HKG	IDN	KHM	MYS	PHL	SGP	TWN	THA	VNM	GI Po
JPN		-51.2	-65.0	3.0	-49.3	-28.8	-56.7	-53.2	8.0	-50.7	-40.4	-16.5	-43.0
KOR	11.8		-35.9	-16.6	-12.5	-23.5	-32.4	-2.7	27.0	-42.4	-17.5	56.2	-10.0
CHN	101.2	86.8		69.8	63.6	58.6	68.5	145.8	83.3	55.0	121.8	186.6	93.8
HKG	9.1	-25.3	-76.3		-12.6	-68.7	-46.7	-48.6	19.6	-30.7	-57.8	-60.1	-52.2
IDN	16.2	-23.4	-38.1	-17.2		-40.2	-14.2	-3.8	44.4	29.5	2.5	-3.0	-1.3
KHM	271.0	206.2	-24.8	66.4	117.7		-22.4	-14.8	20.1	118.6	177.1	-41.1	-21.5
MYS	41.5	-21.2	-31.9	-22.3	-4.6	-62.3		-6.8	-9.7	-7.5	-37.1	-33.7	-24.4
PHL	116.9	78.1	28.6	101.9	17.7	-22.2	-12.2		123.0	12.0	44.7	64.0	44.4
SGP	56.6	-3.0	-36.3	37.2	-26.8	41.3	-8.2	27.1		11.5	-23.4	-23.2	-2.6
TWN	-3.9	0.5	-43.6	-27.6	-31.5	-73.0	-35.3	-14.1	26.1		-28.1	-39.5	-37.6
THA	46.4	-7.3	-27.4	-9.1	-22.7	76.3	-20.3	45.1	-5.3	-28.8		-10.9	5.2
VNM	233.0	282.0	77.2	39.3	-10.8	2.2	74.7	2.0	-36.1	61.6	60.9		20.2
GO Po	57.4	0.2	-46.9	18.4	-9.4	-8.5	-14.4	-0.2	19.7	-17.9	-2.6	34.8	-1.3

자료: TiVA 2016, 2018, 저자 산출

5. 결론

본 연구는 Asia Decoupling 가설을 총 교역데이터가 아닌 UNCTAD의 GVC 데이터와 WTO-OECD의 최신 부가가치 교역 데이터(TiVA 2018)를 사용하여, EA의 밸류체인 변화와 이에 따른 역내의 부가가치 배분 패턴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나아가 최종수요와 수출이 유발하는 부

가가치 기부와 수혜능력 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국가간 상호 부가가치 창출 패턴과 이의 진화에 대한 세부분석을 통해, 역내 성장동력 확보와 부가가치 역의 독립성에 관한 Asia Decoupling 가설의 검증을 시도하였다.

첫째, 밸류체인상의 협력 정도에 관한 기초 측정 지표인 GVC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2010-15 기간 중 EA의 감소 폭이 다른 권역에 비해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EA 밸류체인의 발전을 주도해 온 중국의 GVC 후방 참여도가 2004년 정점에 달한 이후 타 권역 중심국에 비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 GVC 전방 참여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현저한 상승으로 독일과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GVC 전방참여도의 지속적이고 큰 폭의 증가는 중간재 자급 수준을 넘어 역내 타국의 중간재 공급기회를 잠식하는 부정적 측면이 우려된다. 특히 Factory Europe에서의 동구권 국가인 폴란드와 체코 등의 전방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심국 역할의 독일과 GVC 전후방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EA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U와 같이 중심국과 주변국간 GVC 협력관계의 진화가 요구되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 역외 경기변동에의 취약성을 진단할 수 있는 부가가치 해외의존도를 분석한 결과, EA는 2000년대 초부터 2007년까지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3대 권역 가운데 가장 높은 해외의존도를 보였으나 국제금융위기 직후 크게 낮아졌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EA 부가가치 해외 의존도를 역내와 역외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금융위기 직후 역내 비중이 다소 높아졌으나 2012년부터 다시 감소추세에 있고, 200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기타지역 의존도가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미국 의존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의 중점 부분인 최종수요와 수출 유발 부가가치 기부능력과 수혜능력 지표 분석을 통해 EA의 국가간 부가가치 창출과 이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최종수요와 수출 모두 2000년대 초반 급상승했던 역내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2000년대 중반을 전후로 이미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EA의 역내 부가가치 창출과 전도 기능이 국제금융위기 시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넷째, 2000-2015 기간 중 국가간 부가가치 창출

네트워크의 변화를 상세히 살펴본 결과, EA는 EU와는 달리 부가가치 기부능력이나 수혜능력이 늘어난 국가가 드물고, 밸류체인 네트워크 중심국 역할을 하는 중국의 부가가치 기부능력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역내 부가가치 기부능력 증가분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이 독점적으로 수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차기 성장동력의 주역으로 기대되는 ASEAN 국가들의 부가가치 기부와 수혜능력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을 위시하여 한국과 대만, 홍콩 등 역내 선진 경제권의 부가가치 수혜 능력이 중국과의 경쟁에 의해 가장 크게 잠식당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고 연구결과 EA 지역경제 통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된다. 먼저, 국제 금융위기 이후 밸류체인 위축에 따른 교역 부가가치 역내 창출능력의 현저한 감소와 국가간 부가가치 배분의 편중이 확인된 만큼, 역내 중심국과 신흥 개도국간 밸류체인상의 협력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능력 확대를 위해서는 EU나 NAFTA와 같은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역내 공식 경제협력체 추진과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공동정책 시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EA 경제통합의 새로운 중심국으로 기능하는 중국의 GVC상 전·후방 참여 포지션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자와 협력자로서의 중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나 기업 특유의 GVC 협력과 관리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 1) WIOD(EU), TiVA(WTO-OECD), MRIO(ADB), GTAP, Eora 등이 있다.
- 2) Johnson and Noguera(2012), Koopman *et al.*(2014), Wang *et al.*(2013) 등의 부가가치 분해 방법과 Timmer *et al.*(2015) 등의 GVC 분석에 관한 연구가 있다.
- 3) TiVA 2018은 2000-2015년, 63개국 34개 산업에 대한 국제산업연관표와 부가가치 교역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

- 아시아와 동남아시아 13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반해 EU가 지원하는 WIOD는 43개국 56개 산업에 대한 2000-2014 기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4개국만이 포함되어 있어 아시아 GVC 분석에 한계가 있다.
- 4) 동아시아 범위에 대해서는 연구자별로 상이하며, 전통적 분류방법에 따른 동북아시아(한국, 중국, 일본) 또는 동아시아(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포함)를 대상으로 하거나, 여기에 동남아시아(아세안국가)를 포함하기도 한다.
 - 5) 본 연구에서 동아시아(EA)는 한국(KOR), 중국(CHN), 일본(JPN), 대만(TWN), 홍콩(HKG)과 ASEAN 국가 중 싱가포르(SGP), 인도네시아(IDN), 말레이시아(MYS), 필리핀(PHL), 태국(THA), 베트남(VNM), 캄보디아(KHM) 등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12개국을 합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EU 18개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이다.
 - 6) 국제무역을 통한 수직분업도를 측정하기 위한 전통적 지수로는 Hummel *et al.*(2001)의 'VS Index(vertical specialization index)' 지수가 있는데, 이는 수출에 포함된 외국 부가가치만을 측정함으로써 교역상대국을 경유하여 제3국에 재수출된 자국 부가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GVC에서의 양방향 협력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고는 KWW(2014)의 전방연계 수출 분해 방식에 따르며, 이에 의하면 $GVC\ Participation\ Rate = GVC\ Backward\ Participation\ Rate(FVA/VA_exp) + GVC\ Forward\ Participation\ Rate(DVX/VA_exp)$ 로 정의된다. 여기서 FVA는 외국인부가가치, DVX는 교역상대국의 중간재로 투입되어 제3국에 재수출된 국내부가가치, VA_exp는 부가가치 총수출을 표시한다.
 - 7) 김석민(2019)은 Wang, Wei, Yu and Zhu(2017) 방식[수출 분해 GVC 분석방법에서 KWW(2014) 전방연계 방식에 후방연계 방식을 결합하여 국가-산업의 GVC 측정 정확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을 활용하여 2011년 이후 GVC가 약화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 8) Baldwin(2015)는 국제생산네트워크에서 협력 주관자 또는 조립가공자 역할을 기준으로 Head Quarter Economy와 Factory Economy로 나누고, Head Quarter Economy의 자질로서 중간재 수입가공과 더불어 중간재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9) 최기산·장태윤(2018)은 최근 아시아 주요국의 대외의존도 하락을 그간 GVC 확대과정에서 생산기지 역할을 했던 아시아 주요국의 내수중심 구조로의 전환정책에 따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10) 2018년 발표한 TiVA 데이터는 2005-2015 기간 중 부가가치 교역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6년 발표한 TiVA 데이터는 2000-2011 기간 중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2005-2011 기간 중 데이터가 서로 중복되는데, 양자가 서로 다른 국민회계시스템(SAN)과 산업분류표(ISIC) 적용하고 가공무역과 중계무역 처리 방식이 달라 다수 국가들의 데이터 수치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TiVA 2016, 2018의 동기간 자료 비교 시 해석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2000-2005 기간 중 데이터는 TiVA 2016 자료를 활용하고 2005-2016기간 중 데이터는 TiVA 2018자료를 참고하였다(TiVA 2018자료 활용시 2005 대신 2005a로 표시).
- 11) 수출이 유발하는 부가가치의 역내의 배분은

$$1 = \frac{EXGR_DVA_c}{EXGR_c} + \frac{EXGR_FVA_c}{EXGR_c} + \frac{EXGR_FVA_g}{EXGR_c}$$
 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여기서 우변의 식은 각각 일국의 총수출에 함유된 국내 부가가치 비중, 역내 부가가치 비중, 역외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낸다.
- 12) Inomata *et al.*(2015)은 Give-Out Potential과 Gain Potential 지표를 사용함에 있어 부가가치 창출과 이전(transfer) 수준의 국가간 상대적 비교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매년 연도별 분산을 표준화한 수치를 사용했으나(역내 각국 기부(수혜) 능력의 총합은 연도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됨), 본고는 국가간 비교에서 나아가 권역 차원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의 연도별 변화 분석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연도별 분산을 표준화하지 않은 수치를 그대로 사용했다. 다만, 역내 차원의 기부(수혜) 능력은 각 국가의 최종수요나 수출이 각각 1단위 증가했을 때 타국에 대한 부가가치 기부 또는 타국으로부터의 수혜 능력을 지역차원으로 합한 수치로, 연도별 진화과정 분석에는 크게 유용하나 절대적 해석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13) 천용찬·조규림(2015)은 중국의 중간재 투입 자금률이 1%p 상승시 한국의 대중 수출은 8.4%, GDP는 0.2% 감소한다고 분석하였다.
- 14) 정준호·조형제(2016)는 자동차산업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분석에서, 미국과 달리 핵심 부가가치 공급자로서 독일의 위상이 유지되는 이유로 해외 부가가치 공급자인 동시에 사용자로서 그 역할을 지속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 15) 수출유발 부가가치 기부능력의 증가는 타국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국내 부가가치 증가를 유발한다. Taguchi(2018)는 아시아 ASEAN 6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수출에 있어 국내 부가가치 비율간의 시계열 상관관계를 분석,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이 되기까지는 외

국 부가가치비의 비율과 정의 관계가 있는 발전 경로(Development Path)를 따르고 있음을 밝혔다.

- 16) 현기순·이준엽(2016)은 세계무역네트워크와 주요국 산업 역할에 대한 연구에서, 부가가치 수출과 중개자 위치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중개자 유형은 5가지 유형 중에서 대표자(representative) 역할(같은 대륙에서 속하는 산업으로부터 링크를 받아서 다른 대륙에 속하는 산업에게 링크를 보내는 유형)임을 확인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국의 수출유발 부가가치 기부능력 감소는 중국의 이러한 중개 링크 역할이 줄어드는 것과도 관계있다.

참고문헌

곽노성·채희봉, 2015, “세계화와 한국의 지역간 성장격차,”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2), pp.152-167.

김석민·김장호, 2019, 국제산업연관분석을 통한 ASEAN +3 국가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라미령, 2017, RCEP 역내 생산·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연구자료, 2017-18, KIEP.

정준호·조형제, 2016, “OECD 부가가치 기준 교역자료를 이용한 자동차산업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3), pp.491-511.

천용찬·조규립, 2015, 중국 경제의 자급률 상승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안과 과제, 2015-25, 현대경제연구원.

최기산·장태운, 2018, “글로벌 가치사슬의 현황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2018-11, 한국은행.

현기순·이준엽, 2016, “세계무역 네트워크와 주요국 산업의 역할: 부가가치 교역 자료를 이용한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3), pp.677-693.

ADB, 2007, *Uncoupling Asia Myth and Reality*, Asia Development Outlook 2007, Asian Development Bank, Manila.

Athukorala, C., 2009, *Intra-Regional Trade in East Asia: The Decoupling Fallacy, Crisis and Policy Challenges*, ADBI Working Paper 177.

Athukorala, C. and Ravenhill, J., 2016, *China's Evolving Role in Global Production Networks: the Decoupling Debate Revisited*, Austrian National University Working Paper 2016(12).

Baldwin, R. and Lopez-Gonzalez, J., 2013, “Supply Chain Trade: A Portrait of Global Patterns and Several Testable Hypothesis,” *The World Economy* 38(11), pp.1682-1721.

Baldwin, R., 2004, *The Spoke Trap: Hub and Spoke Bilateral Trade in East Asia*, KIEP CNAEC Research Series 2004(2).

Dietzenbacher, E., Los, B., Stehrer, R., Timmer, M. and de Vries, G., 2013, “The Construction of World Input-Output Tables in the WIOD Project,” *Economic Systems Research* 25(1), pp.71-98.

Duval, R., Cheng, K., Oh, K. H., Saraf, R. and Senevirantne, D., 2014,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A Reappraisal with Focus on Asia*, IMF Working Paper 14(52).

Haltmaier, T., Ahmed, S., Coulibaly, B., Knippenberg, R., Leduc, S., Marazzi, M. and Wilson, B. A., 2007, *The Role of China in Asia: Engine, Conduit, or Steamroller?*, FRB Discussion Paper 904.

Hummel, D., Ishii, J. and Yi, K-M., 2001, “The Nature and Growth of Vertical Specialization in the World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4(1), pp. 75-96.

IMF, 2007, *Decoupling the Train? Spillovers and Cycles in the Global Economy*, World Economy Outlook, Washington D.C.

Inomata, S., Suder, G., Liesch, P., Mihailova, I. and Meng, B., 2015, “The Evolving Geography of Production Hubs and Regional Value Chains across East Asia: Trade in Value Added,” *Journal of World Business* 50(3), pp.404-416.

Jeon, J. K., 2018, “Trade Intensity and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A Reappraisal Using Value Added Trade Data,” *Journal of Korea Trade* 22(1), pp.36-49.

Johnson, R. C. and Noguera, G., 2012, “Accounting for Intermediates: Production Sharing and Trade in

- Value Added,”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86(2), pp.224-236.
- Kim, S., Lee, J. W. and Park, C. Y., *Emerging Asia: Decoupling or Recoupling*, ADB Working Papers 31.
- Kwak, R., 2012, “Changes in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Patterns of Trade in Implications for Growth,” Paper for International Workshop(Nagoya).
- Koopman, R., Wang, Z. and Wei, S. J., 2014, “Tracing Value Added and Double Counting in Gross Expor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04(2), pp.459-494.
- Koopman, R., Wang, Z. and Wei, S. J., 2014, *Give Credit Where Credit is Due: Tracing Value Added in Global Production Chains*, NBER Working Paper 16426.
- Lall, S. and Albaladejo, M., 2004, “China’s Competitive Performance: A Threat to East Asian Manufactured Exports?,” *World Development* 32(9), pp.1441-1446.
- Los, B., Timmer, M. P. and de Vries, G. J., 2015, “How Global are Global Value Chains? A New Approach to Measure International Fragmentation,” *Journal of Regional Science* 55(1), pp.66-92.
- OECD and WTO, 2013, *Trade in Value Added: Concepts, Methodologies and Challenges*, Joint OECD-WTO Note, OECD.
- OECD and WTO TiVA, <https://stats.oecd.org/> (최종열람일: 2019.9.30).
- Park, D. and Shin, K., 2011,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n Engine of Growth for Developing Asia?,” *Asian Economic Paper* 10(2), pp.120-163.
- Park, C. Y., 2017, *Decoupling Asia Revisited*, ADB Economic Working Paper 506.
- Park, C. Y., Kim, S. and Lee J. H., 2009, *East Asia: Decoupling or Recoupling?*, ADB Economic Working Paper 31.
- Park, Y. C. and Shin, K., 2009, “Economic Integration and Changes in the Business Cycle in the East Asia,” *Asia Economic Paper* 8(1), pp.107-140.
- Pascha, W. and Ko, J. H., 2014, “Decoupling and Sources of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East Asian Economies: An International Input-Output Decomposition Analysis,”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18(1), pp.55-81.
- Ravenhill, J., 2014, Production networks in Asia, in Peckkanen, S., Ravenhill, J. and Foot, R.(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347-367.
- Rodrik, D., 2006, “What’s So Special about China’s Exports?,” *China & World Economy* 14(5), pp.1-19.
- Taguchi, H., 2018, *Domestic Value Creation in Global Value Chains in Asian Economies*, Munich Personal RePEc Archive Working Paper 89741.
- Timmer, M. P., Dizenbacher, E., Los, B., Stehrer, R. and de Vries, G. J., “An Illustrated User Guide to the World Input-Output Database: The Case of Global Automotive Production,”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23(3), pp.575-605.
- UNCTAD-Eora Global Value Chain Database, <https://worldmrio.com/unctadgvc/> (최종열람일 2019.9.30).
- Wang, Z., Wei, S. J. and Zhu, K., 2013, *Quantifying International Production Sharing at the Bilateral and Sectoral Levels*, NBER Working Paper 19677(Revised 2018).
- World Bank, 2016, *Managing Through a Global Down Turn*, East Asia Update, Washington DC.
- 교신: 곽노성, 04620, 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전화: 02-2260-3505, 이메일: rskwak@dongguk.edu
- Correspondence: Ro-Sung Kwak, 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s and Business, Dongguk University, 30 Pildong-ro 1-gil, Jung-gu, Seoul, 04620, Korea, Tel: 82-2-2260-3505, E-mail: rskwak@dongguk.edu

최초투고일 2019년 10월 28일
수정일 2019년 11월 15일
최종접수일 2019년 11월 25일